

# 향기로운 예물

📍 **십일조헌금** 기입 085-056206-04-030(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공회라 김기수 김순석(임영득) 김현구(서재희) 김현욱 박금엽 박승현 방복순 방현욱(신영신) 배경철(김순화) 백성원(안지영) 석형기(이희순) 안금자 유현호(이영미) 윤병용(백남실) 윤승한(민옥희) 윤예찬 윤정호(유옥자) 이선분(김경연) 이옥남 이종문 이한철(박희영) 채만기(장문주) 채영엽(서시철) 천세력(영영분) 최기훈(정계숙) 최상걸(이미향) 최성현(윤정자) 최정규(김미영) 최경희(박천조)

📍 **선교헌금** 기입 085-056206-04-086(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강은미(김선주) 김병울(이영숙) 김순옥(이한웅) 김현욱 박금엽 박성대 박희영(이한철) 방복순 방현욱(신영신) 배경철(김순화) 안금자 안지영(백성현) 윤승한(민옥희) 이윤옥 이종문 이한용(김순옥) 임영득(김순석) 채영엽(서시철) 최기훈(정계숙) 최봉순(서진화) 최성현(윤정자) 홍한표 에스더여전도회

📍 **감사헌금** 기입 085-056206-04-047(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강은미(김선주) 김경엽(손정아) 김병울(이영숙) 김윤주(오택현) 김중익(박애순) 김지훈 김춘화 박부용(최귀남) 박승현 엄영분(천세력) 윤정자(최성현) 이경주(황군옥) 이근자 이미자 이종문 임영득(김순석) 조규래 채만기(장문주) 채영엽(서시철) 최선미 무 명

📍 **일천번재헌금**

이진우 강은미 김경엽 김영숙 김민성 김민혁 김준구 김혜란 박민서 박순자 송백현 심순옥 안지영 양영옥 양일석 이강우 이경자 이기자 이노을 이미지 이상희 이셀아 이소은 이은순 이옥남 정승현 정혜지 주성락 최귀남 최선미

📍 **월정헌금**

## 주간 성경연구

22주 * 새벽기도회 본문입니다 *			
주 일	출애굽기 24장 1절 ~ 11절		
월요일	출애굽기 24장 12절 ~ 18절	목요일	시편 3편 1절 ~ 8절
화요일	시편 1편 1절 ~ 6절	금요일	시편 4편 1절 ~ 8절
수요일	시편 2편 1절 ~ 12절	토요일	시편 5편 1절 ~ 12절

<b>원로장로</b>	이태일 정기성			
<b>시무장로</b>	윤조훈 강영성 김병울 최기훈 배경철 임만순 박권제 최성현 윤영준			
<b>은퇴장로</b>	방현욱 장영원 문영원 이일로 천세력 방석태 윤병호 윤정호			
<b>교역자</b>	<b>부 목 사</b>	김재호		
	<b>전 도 사</b>	이필래		
	<b>교육전도사</b>	송슬기 김선희		
<b>찬양대</b>	<b>지휘자</b>	할 켈 루 야 <span> </span> : 김한나 호 산 나 <span> </span> : 김안나 시 은 <span> </span> : 에 멘 <span> </span> : 최원지 엔	나 <span> </span> : 김안나 켈 <span> </span> : 이남수	
	<b>반주자</b>	<b>오르간</b>	심혜윤	
		<b>피아노</b>	김민지 하유리 김미희 최유경	
		<b>클라리넷</b>	박진숙 이남수	
		<b>플룻</b>	김민지	
<b>솔리스트</b>	김안나 정예슬			
<b>선교사</b>	<b>파송선교사</b>	<b>태 국</b> <span> </span> : 김정숙	<b>이 집 트</b> <span> </span> : 김신숙	
		<b>수 리 남</b> <span> </span> : 안석철 이성옥	<b>A X 국</b> <span> </span> : 김해월	
		<b>미 국</b> <span> </span> : 김다니엘	<b>A X 국</b> <span> </span> : 이분옥	
		<b>미 국</b> <span> </span> : 최옥희	<b>모 잠 비 크</b> <span> </span> : 홍두표 강순영	
<b>협력선교사</b>	<b>태 국</b> <span> </span> : 박영성 정세미	<b>태 국</b> <span> </span> : 박경환 이순연		
	<b>멕시코</b> <span> </span> : 김홍기			
<b>협력교회</b>	제주 대광장교회, 줄거운교회, 아름다운교회.			
<b>협력단체</b>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세계선교회(G.M.S.), 서울남노회 목양선교회, 소망교도소, 영등포시찰회 중국세계선교회, 서울남노회 G.M.S.			

2021. 05. 23.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다니엘 5장 24절~ 6장 2절

설교: 이진우 목사

오늘은 성령강림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구름타고 승천하실 때 사랑하는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임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며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심으로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렇기에 이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자라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아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감추어진 것을 밝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의 말씀을 결코 인간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진리의 영이며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행할 뿐 아니라 아직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여 죽음의 길로 행하는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성도는,

1.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를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 다니엘은 손가락이 벽에 쓴 문장을 해석합니다. 그 글을 그대로 읽으면 “에네 에네 데 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인데, 다니엘은 문자적인 의미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글을 통해 계시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문자적으로 “에네”가 “계수되다.”는 뜻이고, “데겔”은 “저울로 무게를 달다.”라는 뜻이며, “우바르신”은 “누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이 글은 완전한 문장의 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문장이 아니라 단어 몇 개로 암호와 같은 글을 보이시고 다니엘을 통해 자세히 해석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글을 통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때가 되었고, 벨사살은 왕으로 부족하고, 나라는 망해서 돌로 쪼개질 것이다.”라고 계시하신 것이라고 전합니다.
**하나님은 그 예언을 다니엘만이 설명할 수 있게 하심으로 지금 이 모든 계시의 주체가 다니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리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지혜보다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로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명확하게 깨닫고 분명하게 전해야 합니다.
**만약 성령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 지식으로 말씀을 잘못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켜 많은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군대에 지휘관들은 많은 군사학 공부를 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공부하는 것이 바로 독도법이라고 합니다. 지도를 보고 표시되어 있는 기호나 내용을 해석하는 기술입니다. 만약 지휘관이 독도법을 모르면 자신의 부하들을 사지로 내모는 일들이 생기고 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는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더욱 깊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람의 지혜나 지식, 사상이나 철학으로 이해 할 수 없음을 알고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 바로 알고 바로 행하며 바로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혜를 얻을 때,

2.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벨사살 왕은 약속한 대로 다니엘을 셋째 통치자로 임명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했고, 매대 사람 다리오가 새로운 나라를 열었습니다.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면 멸망당한 나라의 관리들은 권세를 빼앗기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다리오 왕은 바벨론의 셋째 통치자로 임명된 다니엘을 세 명의 총리 한 사람으로 임명합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 온 유다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에서 그와 같이 높은 지위를 얻은 것은 다니엘이 바벨론이라는 이방의 나라에서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함을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바벨론에 이어 매대 왕 다리오 시대에도 큰 권세를 맡겨 주신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하게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땅의 왕을 섬기는 신하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쓰임 받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성도는 사회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모든 직업이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직업 소명론”을 설파했습니다. 이는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직업은 세속적인 일이라는 이원론을 배격하는 사상입니다. 오히려 성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업과 우리의 삶의 일터가 곧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곳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뿐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성도는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을 지키며 성령의 충만으로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행하여 세상의 사람들에게 선한 증거를 얻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열심히 전함으로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로 이끌어야 합니다.

SINCE 1975

No. 47 - 22

대한예수교장로회

# 성현교회

Sung - Hy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우리를 도우소서” [역대하 14장 11절]

목표: 1.진리 파수 2.천국일꾼 양성 3.민족 복음화 4.세계 선교

성현교회

